

광양시, 여름 감성 채우는 로컬체험여행 주목

아로마·라벤더·허브 향기로 오래 기억되는 광양여행

여행지에서 맡은 향기는 오랜 시간 기억 속에 머문다. 특정 향기가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현상을 ‘프루스트 효과(Proust Effect)’라고 한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에서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의 향과 맛을 통해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에서 유래한 용어다.

이처럼 향기는 여행지에서의 순간과 감정을 오래 간직하게 하는 특별한 매개가 된다.

광양에는 아로마와 라벤더, 허브와 꽃이 빛어내는 향기를 따라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로컬 체험 공간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숲속치유정원, 라벤다유엔필, 아이작, 카티모르·플라워에서는 저마다 특색 있는 자연 소재를 활용해 오래 기억될 여행의 순간을 선사한다.

봉강면 하조길에 위치한 ‘숲속 치유정원’은 아로마테라피 박물관과 산림치유체험장, ITEC 아로마테라피 국제자격인증센터를 운영하는 치유 공간이다.

한의학 박사 복영옥 원장이 동서양 약초의 효능을 알리고 이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한다. 매화 화장품, 디톡스 허브오일, 히말라얀솔트 오일버너, 숙성비누, 아로마 훈증테라피 등 약초와 향기를 활용해 몸과 마음의 건강 증진을 돕는다.

광양읍 사곡리에 위치한 ‘라벤다유엔필’은 라벤더 향기와 자연 속 여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팍크닉 농장이다. 농장과 피크닉을 결합한 ‘팍크닉’을 통해 세미캠핑 분위기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라벤더 추출물을 활용한 천연 샴푸·핸드워시·미스트 만들기를 비롯해 향수, 디퓨저, 패브릭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니 화로를 이용한 간식 체험과 라벤더 에이드 만들기도 즐길 수 있다.

진월면에 위치한 ‘아이작’은 계절마다 꽃을 피우는 허브와 식용꽃을 가꾸는 정원형 농장이다. 도예가가 운영하는 허브정원으로, 허브도감·허브식초·허브오일 만들기를 비롯해 스머디스틱, 비누, 향초, 로즈마리 리스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압화 텀블러 만들기, 캔버스 액자 꾸미기, 비올라 코디얼 만들기, 캐모마일 꽃 따기 등을 통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허브와 꽃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옥곡면에 위치한 ‘카티모르·플라워’는 가야산 둘레길 인근에 자리한 체험농장으로 허브 식물 심기, 포푸리 만들기, 다육식물 심기 등 원예 체험을 운영한다.

한여름에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잠시 중단하지만, 작은 연못과 키친정원, 유칼립투스과 올리브 나무가 어우러진 농장 곳곳에서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체험장 위치와 운영 정보,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특산물→농촌체험’ 메뉴에서 체험장별 위치와 연락처, 운영 시간, 프로그램, 최소 운영 인원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가족 단위 여행객부터 학교·기관·동호회 등 단체까지 이용할 수 있어 방문 전 운영 여부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광양의 농촌체험장은 아로마와 허브, 꽃 등 저마다의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만큼 가족, 친구와 함께 광양에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광양시제곡

남원시, 친환경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남원시가 2027년도 친환경농업 분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이번 조사는 사업 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관내 일반 및 친환경 인증 농업인이다. 조사 대상 사업은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친환경 인증농가 농기계 △프리미엄 친환경 쌀 생산 및 상품성 강화 △환경친화형 농자

재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등 총 7개 사업이다. 시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신규 농가부터 기존 인증 농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친환경농업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종모 남원시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인제군,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박차

인제군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귀둔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사업’이 공정을 38%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귀둔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인제읍 귀둔리 577-10번지 일원에 국비 56억 원과 군비 40억 원 등 총 96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1,515㎡로, 3층 규모 숙소 2동 18세대와 1층 규모 관리동 1동을 신축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야 했던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번기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경남농업기술원, 딸기 육묘기

‘고온 저감 패키지 기술’ 고도화 추진

야간 냉방·일장 조절로 병해 예방 연구

경남남도농업기술원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딸기 육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온성 병해 경감을 위한 육묘기 온도 저감 패키지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은 경남 양산에서 42.5℃라는 대한민국 기상 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경신한 데 이어, 밤에도 25℃를 웃도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며 딸기 육묘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지속적인 고온 환경은 꽃눈 형성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탄저병, 시들음병 등 병해 발생 위험을 높여 우량묘 생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경남농업기술원은 외부 차광망, 차열망, 순환팬, 수직 배기팬, 냉방기 등 기존 온

도 저감 기술을 육묘 온실 환경에 맞게 조합한 ‘고온 저감 패키지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연구를 통해 기술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냉방기를 활용해 야간 온도를 18℃ 수준으로 유지하고, 암막 부직포를 이용해 일장을 조



▲딸기픽사베이

절함으로써 폭염과 열대야 조건에서도 딸기 모종의 꽃눈 형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온실 온도를 낮추는 수준을 넘어, 딸기 육묘 단계별 생육 특성에 맞춰 온도와 일장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환경제어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남진우 농업기술원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연구사는 “최근의 기록적인 폭염은 낮 온도 저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야간 온도와 일장 조절 기술까지 확립되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화아분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하고, 탄저병과 시들음병 발생을 줄여 딸기 우량묘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경기도, 2026년 전국 가축방역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16개 시·도 대상 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지방정부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매년 지방정부의 가축방역 실적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축방역 사책의 방역 효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업 등 창의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축종인

오리 조기출하 및 사육제한 ▲농가에 철새 접근 차단을 위한 이동 유도반 운영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 강화를 통한 높은 방어력 유지 ▲중앙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방지 전담조직(TF) 운영 ▲경기도형 중장기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 ▲지방정부 최초 재난형 가축전염병 4종(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렙티스킨) 진단체계 구축 등 예방 중심의 방역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발생 이

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시기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했다. 또 발생지역의 원인을 분석해 방역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장의견을 중앙정부 제도개선으로 연계한 성과도 인정받았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우수기관 선정은 도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를 비롯한 현장 방역 관계자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경기도의 가축방역이 곧 국가방역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자 모집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오는 8월 25일까지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농업 경영자금, 농어

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등을 저리(연이율 1%)에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산사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이다. 사업 신청 전, 지원 대상자는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에

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혹은 각 구청 농정 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행복한농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 한국농어촌공사